

4 인터뷰-한군태 총장



한군태 총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교육과 대학 운영에서 역점을 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현정 기자)

선순환 재정구조 구축 학생 연대감 강화 위한 대책 마련도

▶1면 '총장 인터뷰'에서 이어짐

Q. 지난해 입학한 2020학년도 신입생들은 두 해째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며 학생들은 실제 캠퍼스가 주는 여러 가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에 대한 소속감, 동료 학생들과의 연대감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학의 지원은 혹시 계획되고 있는가?

A. 대학은 지식의 상아탑이자 낭만이 있는 캠퍼스에서 자신의 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공간인데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라 안타깝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소속감, 연대감 강화를 위한 온라인 행사를 시행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본인의 적성 및 대인관계 능력에 궁금증을 느끼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2019년 대비 2020년에 심리 상담 건수와 심리검사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유대감 및 연대감 유지를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통한 상담 제공을 강화했다. 비대면 수업 및 캠퍼스 생활 속에서도 관계를 맺고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람들과의 연결감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특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증가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런 상황에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이캠퍼스가 안정화되고 있다.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교육시스템을 고민하며 미래에 적합한 교육시스템과 제도를 설계하고자 한다. 미네르바 대학, 애리조나 주립대학 등 혁신 대학으로 꼽히는 해외 대학 사례도 참고 중이다. 특히 미네르바 대학의 경우 기존의 대학 교육에서 완전히 벗어나 개별 맞춤식 솔루션 포함을 활용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Q. 비대면 수업 질 향상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슈다. 세 학기째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A. 미래 대학에 대한 고민은 코로

나 발생 전부터 있어 왔다. 미래대학의 캠퍼스는 개방적인 동시에 교육, 연구, 학습에서 AI 활동이 두드러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자연과학, 기술 및 공학, 경영, 예술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학생 스스로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학과나 대학 단위의 과감한 통폐합과 융합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증가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런 상황에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이캠퍼스가 안정화되고 있다.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교육시스템을 고민하며 미래에 적합한 교육시스템과 제도를 설계하고자 한다. 미네르바 대학, 애리조나 주립대학 등 혁신 대학으로 꼽히는 해외 대학 사례도 참고 중이다. 특히 미네르바 대학의 경우 기존의 대학 교육에서 완전히 벗어나 개별 맞춤식 솔루션 포함을 활용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Q. 앞으로 우리학교의 이캠퍼스 활용 확대 방안이 궁금하다.

A.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홀로그램 등 새로운 에듀테크를 접목시킨 학습 환경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우리학

교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번 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의학, 간호학 및 공학 분야의 주요 실험·실습 과목에 VR/AR 콘텐츠를 도입했고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교수학습지원센터 주도로 개발하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구성원 접근성을 향상하고, 이캠퍼스 시스템 진화를 위해 에듀테크 기반 학습 도구 연동과 AI 기능 확장을 검토 중이다.

Q. 비대면 교육은 단지 수업 방식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학 운영 전반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대해 총장께서 구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우리는 문명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AI,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기술 진보와 함께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21세기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환경 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 혁명과 선진형 학문구조 구축에 필요한 계획 수립이 급선무다.

특히 학령인구의 급감은 대학의 미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중장기 발전 계획은 필수 고려 사항이 됐다. 이를 위해 미래대학 준비위원회 10개 분과를 올 초에 구성해 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 온라인 학습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블렌디드러닝, 과정 중심 평가를 도입해 학교 차원에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강화 할 계획이다.

Q. 총장직에 취임한 지 1년을 조금 넘겼다.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두었던 대학 운영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나?

A.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학교는 선제적·역동적 위기 관리 관점에서 지난해 3월 KHU Contingency Plan을 수립해 위기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즉, 고정 경비 절감, 정부 과제 수주 확대, 산학 협력 실적 증진, 발전 기금 확충 등을 통한 선순환 재정구조를 구축해 교육 및 연구 탁월성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학교의 설립 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구현하기 위해 학술과 실천의 탁월성을 추구하며 새로운 문명의 길, 더 나은 인류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학문적 탁월성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지속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탄탄해야 한다. 그렇지만 미래 대학으로의 대전환과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온라인 교육 인프라 혁신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됨 또한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재정 수입은 줄고 경비 집행은 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수입 및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대학 재정 안정성과 위상 제고가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올 한해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

Q. 특히 기금 모금과 관련한 활동이 두드러져 보인다.

A. 발전 기금 모금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전체적인 위상 제고와 발전이 바탕이 돼야 한다. 우리학교는 이를 기반으로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적인 발전기금 모금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코로나19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기회 삼아 경희의 색깔을 가진 발전기금 조성 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올해는 설립자 탄생 100주년을 비롯해 세계 평화의 날 제정 40주년,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 10주년 등 뜻깊은 해이므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발전 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모든 경희 구성원들의 애정 어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